

생산시설 좋아지니 과수 농가 수입 '쑥'

농식품부 실태조사...6대 과수 노동시간 14%↓ 수입 71%↑ 한·칠레 FTA 이후 시설 현대화 추진...전남 5년간 248억 투입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3년과 비교해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과일 생산 농가의 소득이 71% 증가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해 300평(992㎡) 규모 이상 주요 6대 과수의 노동시간은 2003년과 비교해 14%(25시간) 줄었다. 농가 소득은 16년 전과 비교해 71%(133만원) 증가했다. 6대 과수란 사과,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을 가리킨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과수농가는 전체 농

가 102만 가구의 17%에 해당하는 17만 3085가구로 집계됐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규모는 2017년 1251억원, 2018년 1379억원, 2019년 1504억원 등 120억원씩 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전체 예산의 3% 안팎 비중이 투입되고 있다. 2014년 68억원, 2015년 61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49억원, 2018년 35억원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거나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20%를 포함해 국비 20%·지방비 30%·융자 30%의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는 연리 고정금리 2.0%(변동은 시중금

■전남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예산 추이

연도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융자
2014	68	24	36	8
2015	61	21	32	8
2016	35	12	18	5
2017	49	15	23	11
2018	35	11	17	7

(단위: 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리-2.0%)를 조건으로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도 양랑품종을 갱신하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이 설치되고, 생산비-에너지 절감시설 및 장비 등이 지원된다. 비료-농약 등 직접투입제와 농기계, 소모성 장비, 난방시설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가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전남지역 사업 11개 등 총 94개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횡령 등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절차 5건(사업계

획 미공고·공고 기간 미준수) ▲사업집행 부적정 11건(공개경쟁 대상 사업의 수의 계약 체결 2건·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9건) 등이 지적됐다. 또 사후관리에서 당초 면적 대비 생산예상량이 과도하게 선정되는 등 '출하약정 미준수' 7건,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10건 등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 사업계획 공고와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사·도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보완한다.

또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출하약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 수출 환율 변동 피해 걱정마세요”

aT, 환변동보험 지원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서 농민들이 '날뛰기 환율'로 수출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보험 지원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출업체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은 환수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aT는 올해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와 환율시장에서의 변동성 심화로 자칫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변동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반선물환 ▲범위선물환 ▲부분보장 옵션형 ▲안전보장 옵션형 등이 있다. 중소·중견 농축수산물 수출업체는 연간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보험료의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상품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지역 영업점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현근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농식품 수출여건 악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이종고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환변동보험이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환변동보험을 통해 수출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하는 환변동보험 상품은 ▲일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일손부족 농가 돕기 나서



농협 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지난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나주 멜론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펼쳤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멜론 재배농가 포장 작업 등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등 전남지역 농업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농협 전남지역 본부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전남본부는 지난 27일 농협 나주시지부 직원들이 나주시 세지면 멜론 재배농가를 방문해 정화과 포장 작업을 도왔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본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차질이 빚이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협 직원들은 나주시 산포면 농협 호남권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로 자리

를 옮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택배포장도 진행했다.

센터는 올해부터 나주, 순천, 장성, 신안, 해남 등 5개 시·군 입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또 학교 급식 수요가 막힌 친환경 농가를 위해 정부는 대형마트·온라인 몰 판로를 넓히고 자가격려자 1만명에게 '친환경 꾸러미'를 전달한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촌인력 문제와 농산물 소비부진으로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농업농촌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지역 농가 농산물 사주기 혁신도시 기관 구매 동참

농어촌공사·사학연금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급식 등 판로가 막힌 지역농가를 돕기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구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최근 200만원 상당 세지멜론과 한라봉 등을 구매하며 나주시 '친환경농산물 사주기 운동'에 참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훈 이사장은 "사학연금 임직원은 지역농산물 사주기 운동 등 지역농가 지원책에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김치를 구매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에 지원했다.

공사는 기존 주문량보다 늘린 배추김치와 깍두기 5kg 400상자를 주문 생산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지역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김치 4200 상자(5kg)를 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왔다.

앞서 공사는 휴관에 들어간 나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헌혈로 코로나19 극복 도와요”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본부장 이준서)와 수협은행 전남지역금융본부 직원 40명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헌혈에 동참했다. (수협 전남본부 제공)

코로나19 피해 지원...딸기 농가 항공물류비 확대

농식품부, 선박 수출 지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 해외 항공편 축소에 대응해 딸기 수출농가에 대한 물류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류비 예산을 기존 412억원에서 446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축소에 대응해 선박을 이용한 딸기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염소로 딸기를 처리하면 선박을 이용하더라도 딸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딸기 수출이 끝나는 5월까지 선박 수출을 지원한 뒤 선박 수출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비규격품 딸기를 해외 진출 프랜차이즈 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 딸기 가공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딸기 생산량을 지난해

9-10월 발생한 태풍과 개화기 강우로 인한 수정불량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공급 부족 영향으로 딸기 수출단가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3월8일 기준 딸기 2kg 수출 단가는 1만6000원이었지만 이달 9일 기준 수출 단가는 1만65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에서는 광주 3618t, 전남 5만2722t 등 5만6340t의 딸기가 생산됐다.

/백희준 기자 bhj@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스타일

Classic

클래식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스타일